

석유화학 16곳, 사업재편안 제출 정부, 금융·세제·R&D 지원예고

산업부, 구조개편 1단계 마무리
여수·대산·울산 3대 산단 참여
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 제시
내년부터 구조개편 본격 추진

석화산업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이 성
공적으로 마무리됐다.

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까지 3개 석
유화학 산단(여수·대산·울산)의 16개 석
유화학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
진 방향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
고 22일 밝혔다.

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
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
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업재
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
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
한 추진을 독려했다.

김정관 장관은 “모든 기업들이 정부
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
재편안을 제출했다”며 “이를 충실히 이
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
270만~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
예상된다”고 전망했다.

이어 “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
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구조개편을 추
진해나가야 한다”며 “이번 사업재편안을
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
히 수립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
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



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6일 전남 여수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‘여수 지역 석유화학기업 간담회’를 주재하고 있다. /뉴시스

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, 사
업재편 승인시 금융·세제·연구개발(R&
D)·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발표하며
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.

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현대
케미칼·롯데케미칼이 사업재편 승인을
신청한 ‘대산 1호 프로젝트’와 관련된
사항도 논의됐다. 대산 1호 프로젝트는
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
편 예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.

김 장관은 “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
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
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좌우하는 추진의
해가 될 것”이라며 “정부와 기업이 윈윈
이 돼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
향해 전력질주하겠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“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
있는 지역의 중소·중견 협력업체와 고용

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”며
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
을 담은 ‘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
책’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”이
라고 전했다.

한편 석화산업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
기 위한 ‘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’는
23일 출범한다.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
스는 수요 앵커기업, 중소·중견 화학기
업, 학계,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
성원 전체가 참여한다.

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
한 핵심소재 관련 R&D 및 기반 구축 지
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, 정
부는 R&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
는 기업의 R&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
원하겠다는 방침이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metroseoul.co.kr

개인사업자 대출 줄었지만 연체율 ‘사상 최고’

데이터처, ‘개인 사업자 부채’ 발표
개인사업자 평균 대출 1억7892만원
은행·비은행 등 모든 부문서 상승세

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
사업자 평균 대출이 2년째 줄었으나 경
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사상 최
고에 달했다.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
한 ‘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
부채’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평균
대출은 1억7892만 원으로 전년(1억7922
만 원) 대비 0.2% 감소했다.

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2019년부터

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과
2024년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.

반면 작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
0.98%로 전년(0.65%)보다 0.33%포인트(p)
올랐다. 연체율은 2년째 급등해
1%에 육박한 상태로, 관련 통계가 시작
된 2017년 이후 가장 높다.

최재혁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
“2022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대
출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”며
“코로나19 때는 저금리에 정책자금도 투
입되면서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, 금리가
오르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경기

회복도 잘 안 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진
것으로 보인다”고 설명했다.

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층
에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. 평균대출
3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
2023년 1.28%에서 2.03%로 급등한 것
으로 나타났다.

산업별로 보면 건설업(1.42→1.92%)
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고, 사업지원·임
대(0.89→1.31%), 농림어업(0.92→1.
29%), 예술·스포츠·여가(0.61→1.
12%), 숙박·음식(0.69→1.07%) 등이 그
뒤를 이었다.

/세종=김연세 기자 kys@

대한항공·아시아나, 합병 후 좌석 축소로 64억 과징금

공정위, 시정조치 불이행 적발

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
후 인천-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을 합
병 이전과 비교해 70% 수준으로 축소하
는 등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보던 게
드러나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결합 승
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
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
해 총 64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

과한다고 밝혔다. 대한항공이 58억8000
만원,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
각각 물게 됐다. 공정위는 지난해 12월
24일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등을
반영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
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. 공정위는 기업
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쟁제한 우
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
개에 대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
를 함께 부과했다. 여기엔 사실상의 운
임 인상 효과를 줄 수 있는 ‘공급 좌석수

축소 금지’ 조치도 담겼다. 구체적으로
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
는 ‘구조적 조치’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
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%
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.

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
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
‘인천-프랑크푸르트’ 노선에 공급한 좌
석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.5% 수준
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

서울권 의대 수시 미등록 5년 내 최고

종로학원, 4개 의대 수시 미등록 90명
모집정원 축소 속 서울권 쏠림 심화

의대 모집정원 축소는 동일한 환경
속에서도 서울권 의대는 수시 중복합격에
따른 미등록 인원이 늘었고, 지방권 의대
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
났다. 모집정원 축소가 지방권에 집중된
반면 서울권은 인원 변동이 없었던 데다,
전국적인 의대 지원자 수 감소가 맞물리
면서 서울권 의대 쏠림과 중복합격 이탈
이 동시에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.

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
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
서울대학교, 연세대학교, 가톨릭대학
교, 고려대학교 등 주요 4개 의대에서 발
생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인원은 총
90명으로, 수시 모집인원 대비 48.4%에
달했다.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
수치다.

주요 4개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
록 인원은 ▲2022학년도 88명(43.3%) ▲

2023학년도 85명(41.9%) ▲2024학년도
70명(37.6%) ▲2025학년도 84명
(45.2%) ▲2026학년도 90명(48.4%)으로
잡계됐다. 2024학년도를 저점으로 다시
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.

대학별로는 ▲서울대 0명 ▲연세대 28
명(44.4%) ▲가톨릭대 23명(41.1%) ▲
고려대 39명(58.2%)이었다. 서울대는 5
년 연속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인원
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.

연세대와 가톨릭대는 모두 최근 5년
중 미등록 인원이 가장 많았다. 연세대
는 2022학년도 22명에서 2026학년도 28
명으로 증가했고, 가톨릭대 역시 2025학
년도 21명에서 2026학년도 23명으로 늘
었다.

서울권에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
인원을 공개한 이화여대 역시, 대학 공개
자료를 토대로 한 종로학원 분석 결과,
전년도 4명(22.2%)에서 6명(26.1%)으로
늘었다.

/이현진 기자 lhj@

“공동원서·통합회원 가입 미리 준비하세요”

대교협, 2026 정시 원서접수 29~31일

한국대학교육협의회(대교협)가 오는
29일부터 시작되는 2026학년도 정시모
집 원서접수를 앞두고, 수험생들에게 대
입 공동원서 접수서비스를 활용해 통합
회원 가입과 공동원서 작성을 사전에 완
료해 둘 것을 당부했다.

22일 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정
시모집 원서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
사흘간 진행되며, 전문대학은 29일부터
2026년 1월 14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.
수험생들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
통합회원 가입 여부와 공동원서 작성 여
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.

공동원서 접수서비스는 한 번 작성한
공동원서를 활용해 여러 대학에 지원할
수 있는 제도로, 수시모집 당시 작성한
회원정보와 공동원서가 있다면 그대로
재활용할 수 있다. 수시모집에서 공동원
서를 작성하지 않은 수험생은 정시 원서
접수 전 통합회원 가입과 공동원서 작성
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.

통합회원 가입은 원서접수 대행사인
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중



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부모와 입시생들이 입장하기 위해 앉아 기다리고 있다. /뉴시스

한 곳을 통해 가능하며, 한 곳에서 통합
회원으로 가입하면 해당 대행사를 통해
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.

공동원서는 통합회원 ID로 로그인해
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환불
계좌정보, 출신학교 정보 등을 입력해
작성한다. 한 번 작성한 공동원서는 여
러 대학 지원 시 반복 활용할 수 있으며,
수정 후 제출도 가능하다. 다만 공동원
서를 수정한 뒤에는 반드시 ‘내보내기’
기능을 눌러야 다른 대행사에서 수정
내용이 반영된다.

/이현진 기자

농협, 학계·농민단체 중심 ‘혁신위’ 1월 발족

지배구조·내부통제 등 전반 점검

내년 1월 학계·농민단체 등 외부위원
으로 구성된 ‘농협혁신위원회’가 출범한
다. 농협은 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
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
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
침이다.

2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혁신
위는 중앙회장 선출방식, 중앙회장의 역
할·책임 범위, 당연직 운영의 개선방안
등에 대한 검토를 맡는다. 또 지역농축
협 조합장·임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
비롯해 감사위원·조합감사위원을 임명
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, 외부위원

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다루게 된다.

농협은 지난 11월 범농협 혁신 TF(전
담반)를 발족하고 18개에 달하는 혁신
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.

아울러 정부 개혁과제 뒷받침을 위
해,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
원회에서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
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
속히 추진할 예정이다.

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
내용은 ▲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
로 임원선출 투명화 ▲조합원 직선제
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▲농축협 지
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 앞 통지 등
이다.

/세종=김연세 기자